

6세기 전반 대가야의 왕위 교체와 정책의 변화 에서으로의 왕위교체를 중심으로

The change of the throne and the policy in Daegaya in early 6th century - Focusing the change of the throne from King Inoi to King Gasil -

저자 (Authors)	노종국 Noh, Choong Kook
출처 (Source)	한국고대사연구 66 , 2012.6, 253-285(33 pages) 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66 , 2012.6, 253-285(33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고대사학회 Society for Korean Ancient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941116
APA Style	노종국 (2012). 6세기 전반 대가야의 왕위 교체와 정책의 변화. 한국고대사연구, 66, 253-28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 사문화관 210.178.101.*** 2020/03/19 14:1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6세기 전반 대가야의 왕위 교체와 정책의 변화

— 異腦王에서 嘉悉王으로의 왕위교체를 중심으로 —

노종국*

I. 導論

II. 異腦王의 親신라 정책 추진과 실패

1. 백제의 섬진강 유역 진출과 이뇌왕의 대응
2. 變服 사건과 신라와의 관계 파탄

III. 嘉悉王의 즉위와 정책의 변화

1. 월광태자의 悲運
2. 가실왕의 즉위와 계보
3. 가실왕의 세력균형 정책과 통합 정책
- IV. 우륵의 입장과 신라로의 망명 : 맺음말에 대신하여

국문초록

6세기 초반 백제 무령왕은 축소된 경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대가야의 영역인 섬진강 유역으로 진출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가야 이뇌왕은 522년에 신라와 결탁

* 계명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대표논문 : 2010 『백제사회사상사』, 지식산업사 ; 2010 『한국고대의 수전농업과 수리 시설』, 서경문화사 ; 2012 『백제의 왕·후호, 장군호제와 그 운영』 『백제연구』 55,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하고 결혼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신라는 529년에 이 혼인관계를 깨고 도리어 대가야의 성을 점령하여 버렸다. 이로써 이뇌왕의 친신라 정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뇌왕이 죽자 친백제 정책을 추구하던 세력들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들은 이뇌왕의 아들 월광 대신 가실왕을 왕으로 옹립하였다. 가실왕은 이뇌왕의 동생으로 추정된다.

즉위 후 가실왕은 이뇌왕의 친신라정책으로 말미암아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우륵으로 하여금 가야금을 만들게 하고 또 작곡을 하게 하였다. 이는 문화를 통해 사회를 통합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한편 가실왕은 대외적으로 백제와 신라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는 세력 균형 정책을 취하여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가실왕이 죽은 후 아들 도설지왕이 즉위하였다. 도설지왕은 부왕의 통합 정책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음란한 생활에 빠져들었다. 가실왕을 도와 통합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던 우륵은 나라가 장차 어지러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신라로 망명하였다. 신라 진흥왕은 우륵의 망명을 받아들이고 가야금곡을 국가 음악으로 삼았다. 이로써 가야금이 오늘날 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주제어 : 세력균형, 친신라 정책, 친백제정책, 통합정책, 가야금, 결혼정책, 군사적 대응, 變服 사건

I. 導論

『삼국유사』에 의하면 대가야는 서기 42년에 성립하여 562년에 신라에 의해 멸망하였다. 『삼국사기』에는 시조는 伊珍阿豉王이고, 최후의 왕은 도설지왕이며, 왕의 대수는 16대로 나온다. 16대 왕 가운데 중국 사서에 그 이름이 보이는 왕은 荷知王이 처음이다. 그는 479년에 남제에 사신을 보내 輔國將軍將軍本國王이라는 爵號를 받았고,¹⁾ 481년에는 고구려의 공격을 받은 신라를 돕기 위해 백제와 함께 구원군을 파견하였다.²⁾

하지만 이후 6세기에 들어와 활동 시기를 알 수 있는 왕은 異腦王, 가실

왕, 도설지왕이다. 이뇌왕의 활동 시기는 522-529년으로 알려져 있고, 도설지왕은 562년에 신라에 항복하였다. 반면에 가실왕의 실체에 대해서는 명기가 없기 때문에 하지왕과 동일 인물로 보는 견해³⁾, 이뇌왕보다 앞서 재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⁴⁾, 가실왕은 이뇌왕과 동일 인물이라는 견해⁵⁾ 등이 나왔다. 도설지왕에 대해서는 창녕진흥왕척경비에 나오는 도설지는 대가야의 마지막 왕인 도설지와 동일 인물로 보고 월광태자가 신라에 의해 옹립되어 도설지왕이 되었다고 파악한 견해도 나왔다.⁶⁾

왕위계승은 정치와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왕위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의 여부에 따라 지배세력 사이에 변화가 생겨나게 되고 지배세력의 변화는 대외 정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대가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대가야의 경우 왕위계승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는 거의 없다. 그렇지만 이를 추론하는데 단서가 되는 것이 월광태자가 이뇌왕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자의 신분으로 후대에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가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뇌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이뇌왕의 직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 왕을 가실왕으로 파악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뇌왕에서 가실왕으로의 왕위계승은 일종의 왕위교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먼저 이뇌왕이 친신라 정책을 취한 배경과

- 1) “加羅國三韓種也 建元元年 國王荷知使來獻 詔曰 量廣始登 遠夷洽化 加羅王荷知 款關海外 奉贊東遐 可授輔國將軍本國王”(『남제서』 권58, 열전39 동남이 가라국전) 참조.
- 2) “三月 高句麗與靺鞨入北邊 取狐鳴等七城 又進軍於彌秩夫 我軍與百濟加耶援兵 分道禦之 賊敗退 追擊破之泥河西 斬首千餘級”(『삼국사기』 권3, 소지왕 3년조) 참조.
- 3) 田中俊明, 1990 『대가야연맹의 흥망과 임나』, 吉川弘文館.
- 4) 백승충, 1995 『가라국과 우륵 12곡』 『부대사학』 19.
- 5) 권주현, 2000 『우륵을 통해본 대가야의 문화』 『한국고대사연구』 19.
- 6) 김태식, 1996 『대가야의 세계와 도설지』 『진단학보』 81, pp.20~21 참조.

이 정책이 파탄이 나게 된 상황 그리고 이것이 대가야 국내 정세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정리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뇌왕이 죽은 후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지배층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고 그 결과 월광태자는 즉위하지 못하고 대신 가실왕이 즉위한 것으로 정리할 것이다. 셋째는 가실왕이 우륵과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가야제국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백제와 신라 어디에도 기울지 않은 세력균형 정책을 취한 과정을 정리해 두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가실왕을 도왔던 악사 우륵의 신라로의 망명이 가지는 의미를 정리해 두기로 한다.

부족한 사료를 가지고 논지를 전개하다 보니 논리적 비약이 많았을 수도 있다. 이런 미비점은 질정을 받아 수정·보완하기로 한다.

Ⅱ. 異腦王의 親신라 정책 추진과 그 실패

1. 백제의 섬진강 유역 진출과 이뇌왕의 대응

1) 백제의 섬진강 유역 진출

6세기 전반은 백제, 신라, 가야 사이의 관계는 복잡 미묘하게 전개되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백제가 웅진천도 이후 축소된 경제기반을 확대하고자 하였던 섬진강 유역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이다. 이에 대응하여 대가야는 백제와 군사적 대립각을 세우면서 신라에 접근하였다. 이 시기 대가야 왕은 이뇌왕이었다. 이뇌왕은 己富利知伽로도 표기되고 있다.⁷⁾ 섬진강 유역을 둘러싸고 벌어진 대가야와 백제, 대가야와 신라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일

7) 『일본서기』 권17, 계체기 23년조. 이뇌왕의 다른 이름이 己富利知伽라는 설에 대해서는 김태식, 1996 앞의 논문, pp.20~21 참조.

본서기』계체기 23년조의 기사이다.(부호는 필자가 붙인 것임)

春三月 ㉠-1百濟王謂下哆喇國守穗積押山臣曰 夫朝貢使者 恒避鳴曲(謂海中鳴曲倚岸也 俗云美佐祗) 每苦風波 因茲濕所貴 全壞無色 請以加羅多沙津爲臣朝貢津路 是以押山臣爲請聞奏 ㉠-2是月 遣物部伊勢連父根 吉士老等 以津賜百濟王 ㉠-3於是加羅王謂勅使云 此津從置官家以來 爲臣朝貢津涉 安得輒改賜隣國 違元所封限地 ㉠-4勅使父根等因斯羅以面賜 却還大島 別遣錄史 果賜扶余 ㉡-1由是加羅結黨新羅 生怨日本 加羅王娶新羅王女 遂有兒息 ㉡-2新羅初送女時 并遣百人爲女從 受而散置諸縣 令着新羅衣冠 ㉢-1阿利斯等嗔其變服 遣使徵還新羅大羞 讎欲還女曰 前承汝聘 吾便許婚 今既若斯 請還王女 加羅已富利知伽(未詳)報云 配合夫婦 安得更離 亦有兒息 棄之何往 ㉢-2遂於所經拔刀伽古波布那牟羅三城 亦拔北境五城⁸⁾

이 기사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부분은 대가야의 항의에도 불구하고(㉠-3) 백제가 多沙津을 차지한 것((㉠-1, ㉠-2, ㉠-4)을 보여준다. ㉡부분은 이러한 백제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대가야가 신라와 結黨한 후 결혼을 요청하였고(㉡-1), 결혼 후 왕녀의 從者에게 신라복장을 입도록 한 것(㉡-2)을 보여준다. ㉢부분은 신라 왕녀 종자들의 變服으로 말미암아 이 결혼이 破裂됨을 내게 되었고(㉢-1), 그에 대응하여 신라는 대가야의 3城과 5城을 攻拔하였음을(㉢-2) 보여준다.

계체기 23년조에는 이 모든 일이 529년에 일어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삼국사기』에는 대가야 왕과 신라 왕녀가 결혼한 해가 522년으로 나온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기사의 내용은 시간적으로 나누어 ㉠부분은 522년 이전 즉 대가야가 신라와 결당하기 이전의 상황

8) 『일본서기』 권17, 계체기 23년조.

을, ㉠부분은 522년의 상황을, ㉡부분은 529년 결혼이 파열음을 낸 시기의 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이 ㉠부분이다. ㉠부분은 계체기 8년조의 기사와 연계하여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부분에서 대가야가 신라와 결당하여 결혼을 하였다는 것은 대가야와 신라가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음을 보여 주지만 8년조의 기사는 대가야와 신라가 갈등과 충돌 관계에 들어간 것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필자는 8년조의 기사와 ㉠부분은 대가야의 대응 방식이 시기에 따라 달라진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하는 바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대가야와 백제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분이다. ㉠부분의 내용은 백제가 대가야의 다사진을 자기에게 줄 것을 왜에 요청하였고 왜는 그 요청에 응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서기』 계체기 6년조 및 7년조의 내용과 대응된다. 계체기 6년조에는 왜가 上哆唎, 下哆唎, 沙陀, 牟婁 등 4縣을⁹⁾, 7년조에는 己汶과 帶沙를¹⁰⁾ 백제에게 하사한 것으로 나온다. 下賜는 『일본서기』 편찬자의 왜곡과 윤색이다. 이런 왜곡과 윤색을 제거하면 이 기사의 실체는 백제가 이 지역을 차지하였다는 것이 된다.

기문은 섬진강 상류의 임실·남원지역이고, 대사는 섬진강 하류인 하동 지역이다. 그리고 상다리, 하다리, 사타, 모루는 모두 광양만, 순천만 일대에 비정되고 있다.¹¹⁾ 이처럼 섬진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백제는 한강유역의 상

9) “冬十以月 百濟遣使貢調 別表請任那國上哆唎下哆唎沙陀陀牟婁四縣 哆唎國守穗積臣 押山奏曰 此四縣近連百濟 遠隔日本 旦暮易通 鷄犬難別 今賜百濟 合爲同國 固存之策 無以過此…大連依諫 由是改使而宣勅 付賜物并制旨 依表賜任那四縣…”(『일본서기』 권 17, 계체기 6년조) 참조.

10) “下六月…別奏云 伴跛國略奪臣國己汶之地 伏請天恩 判還本屬 冬十一月 辛亥朔乙酉 於朝廷引列百濟姐彌文貴將軍 斯羅汶得至 安羅辛已奚及賁巴委佐 伴跛既殿奚及竹汶 至等 奉宣恩勅 以己汶帶沙賜百濟國 是月 伴跛國遣戢支獻珍寶 乞己汶之地 而終不賜國”(『일본서기』 권17, 계체기 7년조) 참조.

실로 말미암은 축소된 경제기반을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었고, 섬진강을 통해 남해안으로 가는 교통로와 하동을 출항지로 하는 對倭교통로도 확보하게 되었다.

2) 이뇌왕의 대응

(1) 1단계 : 백제·신라에 대한 군사적 대응

己汶(임실·남원 지역)은 대가야가 서쪽으로 진출할 때의 요충지이고, 帶沙(하동 지역)는 남해안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는 곳이었다. 특히 섬진강 하구의 대사는 대가야가 왜와 교역하고자 할 때 드나드는 길목이었다. 때문에 백제의 섬진강유역으로의 진출은 대가야에게는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대한 대가야의 대응을 보여주는 것이 『일본서기』 계체기 8년조의 기사이다.(부호는 필자가 붙인 것임)

三月 ①伴跋築城於子吞帶沙而連滿奚 置烽候邸閣 以備日本 ②復築城於爾列比麻須比 而緬麻且奚推封 聚士卒兵器 以逼新羅 駢略子女 剝掠村邑 凶勢所加 罕有遺類 夫暴虐奢侈 惱害侵凌 誅殺尤多 不可詳載¹²⁾

이 기사에 의하면 伴跋[대가야]의 대응은 두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①부분으로 子吞과 帶沙에 성을 쌓아 滿奚와 연결시키고 烽候와 邸閣을 설치하여 왜에 대비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②부분으로 爾列比와 麻須比에 성을 쌓아 麻且奚와 推封에 연결한 후 사졸과 병기를 모아 신라에 압

11) 김태식, 1996 『가야연맹사』, 일조각 ; 이동희, 2007 「백제의 전남 동부 지역 진출의 고고학적 연구」 『한국고고학보』 64 ; 양기석 외, 2008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참조.

12) 『일본서기』 권17, 계체기 8년조.

박을 가하면서 子女를 駟略하고 村邑을 剝掠하였다는 것이었다. ㉠부분은 왜에 대한 대비를, ㉡부분은 신라에 대한 대비였음을 보여준다.

대가야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이 해명되어야 한다. 하나는 4현 지역과 기문, 대사 지역을 차지한 것은 백제였으므로 대가야는 당연히 백제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였지만 본 기사에는 백제에 대한 대비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계체기 6년, 7년조에는 신라가 대가야에 대해 적대적인 행동을 한 내용이 없음에도 대가야는 신라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면서 나아가 村邑을 抄掠하는 공세적 입장을 취하였다는 점이다.

첫 번째 문제는 왜에 대한 대비책을 백제에 대한 대비책으로 置換하면 설명이 가능하다. 즉 일본에 대비하였다는 것은 『일본서기』 찬자의 윤색과 왜곡이고 실체는 백제에 대한 대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서기』에는 백제가 한 것을 마치 왜가 한 것처럼 윤색하거나, 백제가 점령한 것을 왜가 점령하여 백제에게 하사한 것처럼 왜곡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대가야가 자탄과 대사에 성을 쌓았다고 하는 ㉠부분은 백제가 섬진강을 넘어 하동 이동 지역으로 뻗어오는 것을 막으려한 대가야의 대비책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백제가 섬진강 유역 일대를 차지할 때 신라의 입장과 연관시켜 살펴보아야 한다. 계체기에 의하면 ‘이른바 왜가 백제에게 기문과 대사 지역을 하사해 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신라[斯羅] 사신 汶得至는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았으며,¹³⁾ 物部伊勢連父根은 기문과 대사 지역을 백제에게 하사해 줄 때 ‘因新羅以面賜’하였다고 하였다.¹⁴⁾ 또 왜에서 백제로 가기 위해 온 왜의 사신 物部連은 곧장 帶沙江으로 갔다가 대가야 군의 공격을 받았지만,

13) 『일본서기』 권17, 계체기 7년조

14) “根勅使父根等因斯羅以面賜 却還大島 別遣錄史 果賜扶余”(『일본서기』 권17, 계체기 23년조) 참조.

백제 사신 文貴將軍은 신라를 경유하였기 때문에 백제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¹⁵⁾ 이러한 점들은 백제가 4현 등을 차지할 당시 신라가 이를 용인하였음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고구려의 압박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맺은 濟羅동맹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신라의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가야로서는 신라의 이러한 입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에 대가야는 백제에 대한 대책도 세우면서 신라에 대해서도 ‘駟略子女 剝掠村邑’ 등과 같은 공세적 입장을 취하지 않았을까 한다.

(2) 2단계 : 친신라 정책의 추진과 講婚

대가야가 이렇게 공세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는 섬진강 유역에 대한 지배를 착착 진행시켜 나갔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백제가 섬진강 유역에 설치한 郡令과 城主이다. 군령과 성주의 설치는 다음의 기사에서 확인된다.

冬十一月丁亥朔甲午 遣津守連詔百濟日在任那之下韓百濟郡令城主 宜附日本府...¹⁶⁾

이 기사에서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下韓의 실체이다. 下韓의 일본음 표기는 ‘あるしからくに’여서 南加羅에 대한 일본음 訓讀과 동일하다.¹⁷⁾ 이를 근거로 이 하한을 금관가야로 보기도 하지만 남가라[금관가야]는 532년에 이미 신라에 의해 병합되었기 때문에 흠명 4년(543)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

15) “春二月甲戌朔丁丑 百濟使者文貴將軍等請罷 仍勅副物部連(闕名)遣罷歸之(百濟本記 云物部至連) 是月到于沙都嶋 傳聞伴跛人悔恨銜毒 恃強縱虐 故物部連率舟師五百直詣帶沙江 文貴將軍自新羅去”(『일본서기』 권17, 계체기 9년조) 참조.

16)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4년조.

17) 岩派講座, 『일본서기』 하, p.76의 頭注 5.

라서 하한은 김해 지역이 아니라 전후 문맥에서 미루어 섬진강 유역 일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기사는 백제가 543년 이전에 이미 섬진강 유역에 군령과 성주를 둔 것을 보여준다.

군령과 성주는 백제의 지방관이다. 지방관 파견은 이 지역을 직접 지배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이다. 백제가 이 지역에 군령과 성주를 처음으로 파견한 시기는 백제가 이 지역을 영역으로 편입한 시기와 연계시켜 보아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백제는 512~513년에 이 지역을 차지하였고, 대가야는 522년에 신라에게 결혼을 요청하였으므로 군령과 성주의 설치는 513년 이후 522년 이전의 어느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위의 기사는 513년 이후에 설치된 군령과 성주가 543년까지에도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대가야의 대응을 보여주는 것이 『일본서기』 계체기 23년조에 나오는 다음의 기사이다.(부호는 필자가 붙인 것임)

㉠-3. 於是加羅王謂勅使云 此津從置官家以來 爲臣朝貢津涉 安得輒改賜隣國 違元所封限地…㉠-1由是加羅結黨新羅 生怨日本 加羅王娶新羅王女 遂有兒息¹⁸⁾

이 기사에서 ㉠-3 부분은 백제가 가라[대가야]의 다사진을 차지한 것을, ㉠-1 부분은 가라가 신라와 結黨한 것을 보여준다. 대가야가 신라와 결당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신라가 가야제국 및 백제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한반도 내에서 대가야를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대가야가 신라와 결당하는 구체적으로 방법으로 나온 것이 청혼이었다. 대가야가 청혼을 통해 결당을 추진한 것은 백제와 신라의 관계에서 영향을

18) 『일본서기』 권17, 계체기 23년조.

받았던 것 같다. 이 보다 앞서 백제 동성왕은 495년에 신라에 청혼하여 혼인 관계를 맺었다.¹⁹⁾ 이 혼인 관계는 고구려의 공격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共守 동맹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²⁰⁾ 이뇌왕은 혼인 관계에 있는 신라와 백제 사이를 갈라놓아야만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신라에 청혼하였던 것이다.

신라가 이 청혼을 받아들인 것은 백제에 대한 정책의 변화와 연관이어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라는 처음에는 백제의 섬진강 유역으로의 진출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백제가 군령과 성주를 두는 등 이 지역에 대한 지배를 영속화하는 조치를 취하자 신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백제가 이곳에 대한 입지를 굳히면 굳힐수록 가야세력에 대한 백제의 영향력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가야가 청혼을 해오자 신라는 이 청혼이 백제를 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야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법흥왕은 이찬 比助夫의 누이를 대가야 왕에게 시집보냈던 것이다.²¹⁾ 신라와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대가야는 백제의 압력을 견제할 수 있는 지원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2. 變服 사건과 신라와의 관계 파탄

대가야 이뇌왕이 신라 왕녀와 결혼한 이후 양국 관계의 전개과정을 추론

-
- 19) “春三月 王遣使新羅請婚 羅王以伊滄比智女 歸之”(『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 동성왕 15년) 참조.
- 20) “秋七月 高句麗與新羅戰薩水之原 新羅不克 退保犬牙城 高句麗圍之 王遣兵三千求 解圍”(『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 동성왕 16년) 참조.
- 21) “加羅國王遣使請婚 王以伊滄比助夫之妹送之”(『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법흥왕 9년) 참조.

하는데 단서가 되는 것이 자료 『일본서기』 계체기 23년조의 다음의 기사이다.(부호는 필자가 붙인 것임)

㉔-1. 新羅初送女時 并遣百人爲女從 受而散置諸縣 令着新羅衣冠阿利斯等
嗔其變服 遣使徵還 新羅大差 纘欲還女曰 前承汝聘 吾便許婚 今既若斯 請還王
女 加羅己富利知伽(未詳)報云 配合夫婦 安得更離 亦有兒息 棄之何往²²⁾

이 기사에 의하면 법흥왕은 이뇌왕의 청혼 요청을 받아들인 후 왕녀를 보내면서 시종 100여명도 딸려 보냈다. 이후 이뇌왕과 신라 왕녀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이가 바로 月光태자이다. 여기에서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100명이나 되는 적지 않은 시종이 대가야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하는 점이다. 이들의 본래의 임무는 왕녀의 시종과 호위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100명의 종자가 모두 시종의 역할을 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 숫자가 많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종자들 가운데 일부는 대가야의 내부 사정을 파악하는 임무를 맡은 자도 있지 않았을까 한다. 이를 추론하는데 단서가 되는 것이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 결혼이 정략결혼이라는 점이다. 신라는 이 결혼을 미끼로 대가야의 내정을 탐지하려 하지 않았을까 한다. 다른 하나는 대구묘 從者 파견에 대해 대가야가 의구심을 가졌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가야는 왕녀의 시종들에게 신라식의 옷을 입도록 하였고, 이들을 諸縣에 散置하였다. 신라 옷을 입도록 한 것은 대가야인과 구분이 하기 위한 것으로, 제현에 흩어둔 것은 이들의 집단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된다.

대가야가 이러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 시종들은 529년에 가야 옷으로 바꾸어 입었다.²³⁾ 이리하여 이른바 變服 사건이 일어났다. 이 변복

22) 『일본서기』 권17, 계체기 23년조.

에 대해 신라와 대가야의 공복제 실시와 연관하여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²⁴⁾ 신라 옷과 가야 옷이라는 것이 공복제의 일환이라는 것은 공감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옷을 바꾸어 입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야 옷으로 바꾸어 입은 종자들의 활동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아마도 가야 옷으로 바꾸어 입은 종자들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다가 탄로가 난 것이 빌미가 된 것이 아닐까 한다. 이에 阿利斯等은 변복한 자들을 꾸짖고 이들을 수도로 徵還하였던 것이다.

대가야의 조처에 대해 범흥왕은 강력히 항의하고 나아가 파혼까지 요구하였다. 신라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간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대가야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이러한 강경 조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配合夫婦 安得更離’라는 기사와 ‘亦有兒息 棄之何往’이란 기사에서 보듯이 이뇌왕[고부리지가]이 파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수세적 입장을 취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신라는 이 사건을 꼬투리 삼아 대가야의 刀伽·古跋·布那牟羅 3성과 北境의 5성을 빼앗았다.²⁵⁾

이러한 신라의 조처에 대해 이뇌왕은 특별히 항의하지 않았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이 시기에 대가야가 백제와 꺾끄러운 관계

23) 이 변복을 가야식 옷을 신라식 옷으로 바꾸어 입은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武田幸男, 1975 『新羅の骨品制の再檢討』 『東洋文化研究所紀要』 67, 동경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참조.

24) 武田幸男, 1975 앞의 논문. 변복에 대한 여러 견해의 정리는 김태식, 1993, 앞의 책, pp.193~194 및 백승욱, 2003 『가야각국사연구』, 해안, pp.289~291 참조.

25) “遂於所經拔刀伽古跋布那牟羅三城 亦拔北境五城”(『일본서기』 권17, 계체기 23년조) 참조. 3성의 하나인 布那牟羅는 계체기 24년조에 攻拔하였다(『일본서기』 권17, 계체기 24년조)는 5성의 하나로 나온다. 그래서 신라가 대가야 성을 공취한 시기에 대해 논란이 생겨났지만 어떤 경우이든 대가야의 성을 빼앗은 것은 분명하다.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김태식, 1996 앞의 책 참조.

에 있었다는 사실과 연관시켜 볼 때 신라와의 관계마저 끊어져 버리면 신라와도 적대 관계로 들어가는 상황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래서 영토의 일정부분을 양보한 대신 신라와의 관계가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조치한 것 같다. 이는 일종의 苦肉之策이라 하겠다.²⁶⁾

Ⅲ. 嘉悉王之 즉위와 정책의 변화

1. 월광태자의 悲運

친신라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이뇌왕과 신라 왕녀와의 결혼이 파열음을 낸 것과 신라가 北境의 성들을 攻取한 것은 대가야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이뇌왕의 조치는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정도였다. 매우 미온적인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뇌왕의 이러한 입장이 대가야 사회에 어떠한 파문을 일으켰는가에 대해 종래의 연구에서는 거의 논급이 없었다. 필자는 이 사건이 일으킨 파문에 대해 이뇌왕 이후 왕위 계승 문제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뇌왕은 신라 왕녀와의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529년까지는 왕위에 있었다. 이후 어느 시기에 죽었다. 그러면 그 뒤를 이은 왕은 누구일까. 이

26) 이뇌왕의 이러한 처신과 유사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550년 고구려와 백제의 신라에 대한 태도이다. 550년 당시 백제는 고구려의 도살성을 공발하였고, 고구려는 백제의 금현성을 함락하였다. 신라는 두 나라가 싸움으로 피곤한 틈을 타서 두 성을 모두 차지하였다(『삼국사기』 권4, 진흥왕 11년조). 그렇지만 백제나 고구려 어느 쪽도 신라에 대해 공격을 하지 않았다. 어느 쪽이 공격하면 신라가 반대 편 세력에 붙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삼국 사이의 세력 균형이 깨어지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노중국, 2006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고구려의 한강유역 점령과 상실을 중심으로」 『북방사논총』 11, 고구려연구재단 참조.

문제와 관련하여 근래에 “이뇌왕이 죽은 후 이뇌왕과 가야인 왕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왕위를 이었다. 그러나 신라가 대가야를 정벌한 후 이뇌왕과 신라 왕녀 사이에 태어난 월광태자를 다시 왕으로 옹립하였다. 이 왕이 바로 대가야의 마지막 왕인 道設智王이다”라는 새로운 견해가 제기되었다.²⁷⁾ 그러나 필자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는 왕위는 꼭 부자상속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위의 견해에는 왕위가 부자 상속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래서 이뇌왕과 가야인 왕비 사이에 아들이 태어난 것으로 설정하고 이뇌왕이 죽은 후 이 아들이 왕위를 계승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뇌왕이 신라 왕녀 외에 가야인 왕비와 결혼하였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왕위를 이었다는 것은 추정에 불과하다. 또 왕위계승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계보를 달리하는 왕족도 계승할 수 있다. 따라서 이뇌왕 사후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었다는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월광은 태자로 후세에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견해에서 월광태자가 신라에 의해 왕위에 올라 도설지왕이 되었다고 본 것은 도설지라는 이름이 창녕신라진흥왕척경비와 단양적성비에 나오는 것에 근거한 추론일 뿐이다. 대가야의 마지막 왕인 도설지가 신라에 항복한 후 신라에서 일정한 대접을 받아 귀족관료로 활동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월광태자는 후세에 태자로 전해져 오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칭호는 그 사람이 생시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누렸던 최고의 위상을 보여준다. 월광태자의 경우 그가 지닌 최고의 칭호는 태자였다. 만약 그가 왕위에 올랐다면 후대에는 당연히 ~왕으로 불렸을 것이다. 그렇지만 후세에까지 태자로 전해져 왔다는 것은 그가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월광태자는 도설지왕으로 비정할 수 없는 것이다.

27) 김태식, 1996 「대가야의 세계와 도설지」 『진단학보』 81 참조.

태자는 제1의 왕위계승권자이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이뇌왕이 죽은 후 아들 월광태자가 왕위를 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월광은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다. 왕위계승 문제는 당시 지배세력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다. 태자의 지위에 있었던 월광이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은 이뇌왕 사후 대가야에서는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지배세력 사이에 커다란 분쟁이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 필자는 두 가지 사항에 주목하고자 한다.

하나는 529년에 일어난 신라와의 갈등 관계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복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뇌왕과 신라 왕녀와의 결혼은 파탄의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었고, 신라는 이를 꼬투리 삼아 3성과 5성을 빼앗았다. 신라의 이러한 행위는 親신라 정책을 추진하였던 이뇌왕과 그 지지 세력들을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하지왕 이래 親백제 정책을 추진하였던 세력들은 이뇌왕에게 책임을 추궁하면서 정치적 주도권을 잡지 않았을까 한다.²⁸⁾ 이 과정에서 이뇌왕은 제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혹 제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권이 없는 존재로 되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월광의 나이이다. 529년 당시 월광의 나이는 7세 정도였다. 이뇌왕이 돌아갔을 때도 월광의 나이는 유년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뇌왕이 죽거나 또는 제거되자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한 친백제 세력들은 월광태자의 즉위를 반대하였을 것이다. 여기에는 신라 왕녀의 아들인 월광이 즉위하면 親신라파가 득세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들은 월광이 유년이라는 것을 명분으로²⁹⁾

28) 이는 백제의 경우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에게 패한 뒤 즉위한 위덕왕에게 耨耨들이 패전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정치적 주도권을 잡은 것(『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6년 조)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서는 노중국, 1988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참조.

29) 전왕의 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왕위에 오르지 못한 사례로는 비록 백제의 경우이지만 침류왕이 죽자 아들 아신이 어리다는 이유로 숙부 진사가 왕위에 오른 것, 분서왕이 죽은 후 아들 계가 어리다는 이유로 비류왕이 즉위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내세워 즉위를 반대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로 말미암아 월광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태자 신분으로 일생을 마쳤다. 그래서 월광은 후세에 월광태자로 그 이름이 전해지게 되었다.

왕위에 오르지 못한 이후 월광태자는 불교 신자로서 삶을 살았던 것 같다. 이러한 삶은 그의 이름과 月光寺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月光太子라는 이름은 석가세존이 過去世에 국왕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의 명칭과 같다. 이는 월광태자의 명칭이 불교적 성격이 강한 것을 보여준다. 또 월광태자는 正見母主의 10세손으로 나온다. 정견모주의 ‘正見’은 불교의 八正道의 첫 머리를 이루는 수행방법이다. 이는 정견모주라는 이름에도 불교적 성격이 들어 있음을 보여준다.³⁰⁾ 따라서 월광태자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을 것이다.³¹⁾ 왕위에 오르지 한 월광태자는 불교에 더욱 심취하여 월광사를 짓고 수행 생활을 한 것 같다. 이것이 자신의 비운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2. 가실왕의 즉위와 계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월광태자는 부왕 이뇌왕이 죽은 후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였다. 그러면 이뇌왕의 뒤를 이은 왕은 누구였을까. 즉 당시 실권을 장악한 세력들에 의해 옹립된 왕은 누구였을까. 이뇌왕 이후 이름을 알 수 있는 대가야 왕은 도설지왕과 嘉悉王 둘뿐이다. 그런데 도설지왕은 마지막 왕이어서 이뇌왕의 바로 다음 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뇌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왕은 가실왕으로 보아야 한다.³²⁾ 그러기 위해서는 가

30) 이렇게 보면 아들 이름을 月光으로 지어준 이뇌왕도 불교신자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31) 김복순, 1995 「대가야의 불교」 『가야사연구-대가야의 정치와 문화-』, 경상북도.

32) 주보돈, 2005 「우륵의 삶과 가야금」 『악성 우륵의 생애와 대가야의 문화』, 고려군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pp.31~32.

실왕이 이뇌왕 이후의 왕임을 입증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가실왕의 실체에 대해 479년에 남제에 사신을 보낸 하지왕과 동일한 인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하지왕이 최초로 남제에 사신을 파견하여 본국왕의 작호를 받아 그 위상이 높았다는 점, 그 위상을 바탕으로 가실왕은 대가야연맹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점, 대가야연맹체에 참여한 나라들이 바로 우륵 12곡의 曲名에 보인다고 하는 점 등을 그 근거로 한 것이다.³³⁾

그러나 가실왕을 하지왕과 동일 인물로 보면 우륵의 나이가 문제가 된다. 우륵이 하지왕이 남제에 사신을 보낸 479년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신라로 망명하여 진흥왕을 만난 551년에는 70세가 넘으며, 479년 이전에 태어났다고 하면 그는 80세 이상이 된다. 한 개인이 80세 이상을 살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가실왕은 하지왕과 동일인물이 아니다.

그러면 가실왕은 어느 시기의 사람일까. 이를 추론하는데 단서가 되는 것이 우륵이 신라로 망명한 시기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륵은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고 가야금을 가지고 신라에 망명하였다.³⁴⁾ 망명 후 낭성에 거주하고 있던 우륵은 551년에 신라 진흥왕의 부름을 받고 河臨宮에서 제자 이문과 함께 신곡을 만들어 연주하였다.³⁵⁾ 그런데 551년 3월에 신라는 백제 및 가야군과 더불어 고구려를 공격하여 竹嶺 이외 高峴 이내의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하였다.³⁶⁾ 이로 미루어 보면 우륵은 551년 직전에 신라에로 망명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가실왕은 이뇌왕이 사망한 529년 이후 즉위하여 551년 이전의 어느 시기까지 재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3) 田中俊名明, 1990 앞의 책, pp.73~78.

34) “後 于勒以其國將亂 攜樂器 投新羅眞興王 王受之 安置國原”(『삼국사기』 권32, 지제1樂 가야금조) 참조.

35) “三月 王巡狩次娘城 聞于勒及其弟子尼文知音樂 特喚之 王駐河臨宮 令奏其樂 二人各製新歌奏之”(『삼국사기』 권4, 진흥왕 12년조) 참조.

36) “三月…王命居柒夫等 侵高句麗 乘勝取十郡”(『삼국사기』 권4, 진흥왕 12년조) 참조.

가실왕은 월광태자의 즉위를 반대하는 친백제 세력에 의해 옹립되었다. 그렇다면 가실왕은 이뇌왕의 직계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면 가실왕과 이뇌왕과의 계보 관계는 어떠할까. 이를 추론하는데 방증자료가 되는 것이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이다. 고구려의 경우 연개소문은 정변을 일으켜 영류왕을 죽인 후 영류왕의 동생인 大陽의 아들 寶藏을 왕으로 옹립하였다.³⁷⁾ 백제의 경우 침류왕이 죽은 후 태자 아신이 어리다는 이유로 동생 진사왕이 왕위에 올랐다.³⁸⁾ 두 사례 모두 태자가 있음에도 왕의 동생이 왕위를 계승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들을 원용하면 가실왕은 이뇌왕의 동생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가실왕을 이뇌왕의 동생으로 볼 때 정리해야 두어야 할 것이 대가야 왕 계보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대가야는 520년간 16世 왕이 재위한 것으로 나온다.³⁹⁾ 반면에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이뇌왕은 시조 惱室朱日王(伊珍阿跂王)의 8世孫으로, 아들 月光태자는 正見母主의 10世孫으로 나온다.⁴⁰⁾ 이 두 자료는 왕위를 이어가는 왕대수와 혈연적 계보관계를 보여주는 世系數가 다른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16세를 王代 數로, 8세를 세대 수로 파악한 견해도 있고,⁴¹⁾ 16세대는 造作이고 8세대가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⁴²⁾ 그러나 8세대는 이뇌왕이 뇌질주일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지 마지막 왕인

37) “王諱臧(或云寶藏) 以失國故無諱 建武王弟大陽王之子也”(『삼국사기』 권21, 보장왕상) 참조.

38) “辰斯王 近仇首王之仲子 枕流之弟 爲人強勇聰惠 多智略 枕流之薨也 太子少 故叔父辰斯卽位”(『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 진사왕 즉위년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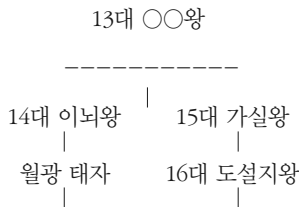
39) “大加耶始祖伊珍阿跂(內珍朱智)至道設智王 凡十六世五百二十年 眞興大王侵滅之”(『삼국사기』 권34, 지리1 강주 고령군조) 참조.

40) “又釋順應傳 大伽倻國月光太子 乃正見之十世孫 父曰異腦王 求婚于新羅 迎夷絜比枝輩之女 而生太子 則異腦王乃惱室朱日之八世孫也”(『신증동국여지승람』 권29, 경상도 고령현 건치연혁조) 참조.

41) 田中俊明, 1992 『大加耶聯盟と任那』, 吉川弘文館, p.170.

도설지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또 왕위 계승은 꼭 부자 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형에서 동생으로, 삼촌에서 조카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왕대수와 세대수는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대가야의 왕대수는 16대로, 세대수는 10세대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대가야의 왕대수가 16대라고 하면 대가야가 건국한 서기 42년에서 멸망한 562년에 이르기까지 한 왕의 평균 재위연수는 32-33년 정도 된다. 그런데 이뇌왕이 활동하였던 529년에서 대가야가 멸망한 562년까지의 기간은 약 30년 정도이다. 이 사이에 2명의 왕이 재위할 수는 있다. 2명의 왕이라고 하면 한 왕은 가실왕이 되고 다른 한 왕은 마지막 왕인 도설지왕이 된다. 그렇다면 도설지왕은 가실왕의 아들이 된다. 가실왕을 이뇌왕의 동생으로, 도설지왕을 가실왕의 아들로 보면 가실왕도 이뇌왕처럼 정견모주의 9세손(시조 뇌질주일의 8세손)이 되고, 도설지왕도 월광태자와 마찬가지로 정견모주의 10세손(시조 뇌질주일의 9세손)이 된다. 이러한 대가야의 왕계보를 정리하는 다음 표와 같다.



42) 백승충, 1995 『가야의 지역연맹사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38 및 김태식, 1996 앞의 논문, p.3.

3. 가실왕의 세력균형 정책과 통합 정책

1) 세력 균형 정책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복 사건을 꼬투리로 신라는 대가야의 3성과 5성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532년에는 김해의 금관가야를 멸망시키고⁴³⁾ 또 탁산과 탁기탄도 멸망시켰다. 이는 가야연맹체를 구성한 諸國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충격과는 연맹체를 구성한 국들의 이탈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때 백제가 대가야에 접근해 왔다. 그 명분은 가야제국을 신라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것과 신라에 의해 멸망된 남가라, 탁산, 탁기탄을 함께 부흥시키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가실왕의 입장은 성왕이 소집한 두 차례의 사비회의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 1차 사비회의는 541년에 소집되었다. 그러나 가야제국은 이 회의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 가야제국은 신라와 협상을 먼저 가졌다. 이 협상은 2~3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전후 문맥에서 미루어 보면 협상의 주된 내용은 신라가 멸망시킨 남가라, 탁, 탁기탄 3국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라는 가야제국의 이러한 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⁴⁴⁾ 이는 신라가 이 지역을 되돌려 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을 보여준다.

신라와의 개별적 교섭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야 가야제국은 사비회의의 소집에 응하기로 하였다. 가야제국의 이러한 행동은 가야제국이 쉽게 백제의 요구에 응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1차 회의에는 가라국, 안라국, 사이기국 등 8국의 수장이나 수장의 아들이 대표로 왔다. 이때 성왕은 백제와 가

43) “金官國主金仇亥 與妃及三子 長曰奴宗 仲曰武德 季曰武力 以國帑寶物來降 王禮待之 授位上等 以本國爲食邑”(『삼국사기』 권4, 법흥왕 19년조) 참조.

44) “任那早岐等對曰 前再三廻 與新羅議 而無答報 所圖之旨 更告新羅 尙無所報…”(『일본서기』 권19, 흠명기 2년조) 참조

야가 근초고왕-근구수왕대부터 父兄과 子弟와 같은 親好 관계를 맺은 것을 강조한 후 앞으로 신라가 공격하면 백제가 마땅히 가서 구해주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방비를 잘 할 것을 주문하였다.⁴⁵⁾ 그리고 가라 3국이 멸망한 것은 신라가 강해서가 아니라 탁기탄은 임나가 구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남가라는 의탁할 바를 몰랐기 때문에, 탁순은 스스로 신라에 내부하였기 때문에 멸망당하였다고⁴⁶⁾ 하면서 가야제국이 백제와 힘을 합하면 신라가 단독으로 가야제국을 멸망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가야제국의 수장들은 3국 재건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대해 성왕의 계책을 흔쾌히 따르기로 하였다.⁴⁷⁾

그러나 3국의 재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는 신라의 완강한 반대와 더불어 백제가 섬진강 유역에 설치한 군령·성주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대가야의 입장에서는 신라에게 빼앗긴 5성 문제나 백제가 섬진강 유역에 설치한 군령, 성주 문제는 모두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대가야는 한편으로는 3국의 재건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백제에게 군령 성주를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그렇지만 백제 성왕은 강적 고구려에 대항하고 또 신라가 멸망시킨 南加羅·卓淳·喙己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군령과 성주를 둘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섬진강 유역의 점령을 기정사실화하려 하였고, 나아가 531년에는 안라에 군대를 진주시키고 乞托城을 경영하기까지 하였다.⁴⁸⁾ 이로 말미암아 양국 사이의 갈등은 조정되기 어

45) “聖明王曰昔我先祖速古王貴須王之世 安羅加羅卓淳旱岐等 初遣使相通 厚結親好 以爲子弟…儻如使人未還之際 新羅候隙侵逼任那 我當往救 不足爲憂”(『일본서기』 권19, 흠명기 2년조) 참조.

46) “其喙己呑…任那無能救援 由是見亡 其南加羅叢爾狹小 不能卒備 不知所託 由是見亡 其卓淳上下携貳 至欲自附內應新羅 由是見亡”(『일본서기』 권19, 흠명기 2년조) 참조.

47) “夫建任那者 爰在大王之意 祇承教旨 誰敢間言”(『일본서기』 권19, 흠명기 2년조) 참조.

48) “此云廿五年歲次辛亥崩者 取百濟本記爲文 其文云太歲辛亥三月 軍進于安羅 營乞托

려왔다.

1차 사비회의가 소기를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성왕은 544년에 제2차 사비회의를 소집하였다. 그 목적은 백제의 4현 점령은 그대로 인정하고 3국의 부흥문제에 대해서만 가야제국과의 공동의 전선을 형성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야제국은 이번의 소집 통보에도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왕은 세 번에 걸쳐서 사신을 보내야 하였다. 첫 번째의 사신 파견에 대해 가야제국은 정월이 지나면 가겠다고 하면서 회의에 불참하였다. 두 번째 소집 요구에는 祭祀 기간이 지나면 가겠다고 명분으로 역시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 번째의 소집 요구에 가야제국도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어 대표를 보냈다.⁴⁹⁾ 그러나 이들은 지위가 낮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의논이 될 수 없었다.

성왕이 3번에 걸쳐 사신을 파견하여 참석을 독려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야제국이 미적거린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가야제국이 백제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시기가 가야제국이 풀어야 할 문제는 4현과 3국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왕은 4현 문제는 도외시한 채 3국문제만을 거론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가야제국 내의 河內直, 伊那斯, 麻都 등 친신라 세력의 방해 공작이다. 이 중 대표적인 인물이 麻都였다. 그는 韓腹 즉 왜인과 한반도 여인 사이에 태어난 인물로서⁵⁰⁾ 안라에서도 위세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奈麻禮冠을 쓰고 신라에 왔

城”(『일본서기』 권19, 계제기 32년조) 참조.

49) “乃遣使召日本府(百濟本記云 遣烏胡跛臣 盖是的臣也)與任那 俱對言 新年既至 願過而往 久而不就 復遣使召 俱對言 祭時既至 願過而往 久而不就 復遣使召 而由遣微者 不得同計…”(『일본서기』 권19, 흥명기 5년조) 참조.

50) 倭人 남자와 韓婦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韓子라고 한다[“又殺吉備韓子那多利斯布利大日本人娶蕃女所生爲韓子也”(『일본서기』 권17, 계제기 24년조) 참조]. 韓腹도 韓子和 동일한 의미이다.

다 갔다 하는 정도로 친신라적 인물이었다.⁵¹⁾ 이들은 신라를 위해 대가야가 백제와 협력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세 번에 걸쳐 회의 소집에 실패한 성왕은 544년 11월에 다시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번에는 가야제국의 수장들이 참석하였다. 이리하여 제2차 사비회 의가 열리게 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자들은 가라국의 上首位, 안라국의 二首位 등과 여타 나라들의 旱岐(君)들이었다. 이 회의에서 성왕은 백제와 가야가 역사적으로 우호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언급하고 또 3국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신라와 안라의 국경선이 되는 大江水(낙동강) 가에 6성을 쌓고 이곳에 백제 군대를 주둔시켜 신라의 압박을 막자는 것이다. 둘째는 백제가 설치한 군령·성주는 철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으로 강적인 고구려가 있으므로 군령과 성주를 두어 방호하지 않으면 도리어 강적인 고구려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신라까지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吉備臣, 河內直, 伊那斯, 麻都 등 가야제국 안에 있는 이른바 친신라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다.⁵²⁾

가야제국의 수장들은 성왕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도⁵³⁾ 돌아가서 가라왕과 안라왕에게 삼가 자문을 구하겠다고 하였다.⁵⁴⁾ 가라왕과 안라왕에게 자문

51) “佐魯麻都 雖是韓腹 位居大連 廁日本執事之間 入榮班貴盛之列 而今反著新羅奈麻禮冠 卽身心歸附…今猶著他服 日赴新羅城 公私往還 都無所憚”(『일본서기』 권19, 흥명기 4년조) 참조.

52) “新羅安羅兩國之境 有大江水 要害之地也 吾欲據此修繕六城 謹請天皇三千兵士 每城充以五百并我兵士 勿使作田而逼惱者 久禮山之五城 庶自投兵降首 卓淳之國 亦復當興 所謂兵士 吾給衣糧 欲奏天皇 其策一也”(『일본서기』 권19, 흥명기 5년조) 참조.

53) “於是 吉備臣 旱岐等曰 大王所述三策 亦協愚情而已 今願歸以敬諮日本大臣(謂在任那日本府之大臣也)安羅王加羅王…”(『일본서기』 권19, 흥명기 5년조) 참조.

54) “於是 吉備臣 旱岐等曰 大王所述三策 亦協愚情而已 今願歸以敬諮日本大臣(謂在任那日本府之大臣也)安羅王加羅王 俱遣使同奏天皇 此誠千載一會之期 可不深思而熟計

을 구한다고 한 것은 백제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라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를 입증해 주는 것이 안라의 태도이다. 성왕이 제안한 3가지 계책 가운데 안라국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 첫 번째 대책이다. 이에 대한 안라국의 반응은 안라가 고구려와 비밀히 결탁하였다는 소문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 소문은 548년 1월에 고구려가 馬津城을 공격하였을 때 붙잡힌 고구려 포로로부터 나왔다.⁵⁵⁾ 성왕은 안라에서 이러한 일을 획책한 것은 伊那斯(延那斯)와 麻都였다고 하였다.⁵⁶⁾ 안라가 고구려와 通計하였다는 말이 백제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말이 돌았다는 자체는 안라가 2차 사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그대로 따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가야제국은 한편으로는 신라와 협상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백제가 소집한 사비회의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사비회의에 참여한 이후에도 백제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추종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가실왕이 백제와 신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세력균형을 이루어 자국의 안정과 연맹체의 결속을 이루려고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2) 통합정책의 추진과 우륵 12곡

가실왕은 즉위 후 연맹체를 구성한 국들의 동요와 이탈을 막기 위해 연맹체에 대한 결속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가실왕이 “諸國의 方言이 각각 聲音을 달리하니 어찌 하나로 할 수 있겠는가.”⁵⁷⁾ 라고 한 말이

歟”(『일본서기』 권19, 흠명기 5년조) 참조.

55) “然馬津城之役(正月辛丑高麗卒衆馬津城)虜謂之曰 由安羅國與日本府招來勸罰 以事准況 寔當相似 然三廻欲審其言 遣召而並不來 故心勞念 伏願可畏天皇(西蕃皆稱日本天皇爲可畏天皇) 先爲勸當 暫停所乞救兵 待臣遣報”(『일본서기』 권19, 흠명기 9년조) 참조.

56) “夏六月乙酉朔辛卯 將德久歸 固德馬次文等請罷歸 因詔曰 延那斯麻都 陰私遣使高麗者 朕當遣問虛實 所乞軍者 依願停之”(『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0년조) 참조.

다. 각국의 聲音(음악)이 다르다고 한 것은 각자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전통성이 강할수록 독립적인 성격도 강하다. 각국의 이러한 독립성은 이뇌왕의 친신라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더 심해졌을 것이다. 이에 가실왕은 聲音의 齊一化를 통해 연맹체를 하나로 묶으려 하였다. 이는 문화와 제의를 이용한 결속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방향을 정한 가실왕은 이 임무를 성열현인 우륵에게 맡겼다. 그는 대가야에서 樂師의 지위에 있었다. 왕의 부름을 받은 우륵은 중국의 箏을 본으로 하여 가야금이라는 새로운 악기를 만들고 또 이 악기로 연주할 12곡을 작곡하였다. 우륵이 12곡을 만든 시기는 가실왕의 새로운 음악 창제가 가야연맹체의 결속을 위한 것이라는 것과 532년 금관가야의 멸망이 가야제국에 준 충격을 고려할 때 532년을 크게 지나지 않은 시기로 볼 수 있다.⁵⁸⁾

우륵이 제작한 12곡의 성격은 注知, 階古, 萬德의 말에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우륵이 신라로 망명한 후 왕명에 의해 이들에게 각각 琴과 歌와 舞를 가르쳤다.⁵⁹⁾ 우륵에게서 12곡을 전수받은 후 이들은 이 곡들에 대해 “此繁且淫 不可以爲雅正”이라고 평가하였다.⁶⁰⁾ 여기에서 雅와 正은 유교적 성격의 표현이므로 繁과 淫은 그것에 대칭되는 표현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繁且淫한 12곡은 유교적 성격의 곡이라기보다는 토착적 정서가 강한 성격의 곡이라고 하겠다.

12곡의 이름은 下加羅都, 上加羅都, 寶伎, 達已, 思勿, 勿慧, 下奇物, 師

57) “羅古記云 加耶國嘉實王見唐之樂器而造之 王以謂諸國方言各異聲音 豈可一哉 乃命樂師省熱縣人于勒造十二曲…”(『삼국사기』 권32, 잡지1 악 가야금조) 참조.

58) 주보돈, 2006 『우륵의 삶과 가야금』 『악성 우륵의 생애와 대가야의 문화』, 고려군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pp.31~32.

59) “王命階古法知萬德三人 學樂於于勒 于勒量其人之所能 教階古以琴 教法知以歌 教萬德以舞 業成…”(『삼국사기』 권4, 진흥왕 13년조) 참조.

60) 『삼국사기』 권32, 악지1 樂 가야금조.

子伎, 居烈, 沙八兮, 爾赦, 上奇物이다. 이 곡명을 분석해 보면 하가라도와 상가라도는 곡명에 ‘都’가 들어 있어 왕도와 관련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보기와 사자기는 불교적 성격의 곡명이며,⁶¹⁾ 나머지는 모두 국명이 붙은 곡명이다.⁶²⁾ 이 가운데 상가라는 대가야를, 하가라는 금관가야를 가리킨다.⁶³⁾ 나머지 8개의 곡명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면 사물은 사천시, 하기문은 남원시, 거열은 거창군, 사팔혜는 함천군 초계면, 상기문은 임실군에 비정되고 있고 達巴와 勿慧 및 爾赦는 미상이다.⁶⁴⁾

우록 12곡 가운데 10개 곡이 국명과 관련됨으로 각국의 수장들이 대가야에 모여 회합을 하거나 의례를 행할 때에 그것에 맞추어 연주되었을 것이다. 연주 장소는 회합의 성격에 따라 달랐을 것이다. 12곡이 연주될 때 연주 순서는 분명히 하기 어렵지만 12곡의 기재 순서가 바로 연주 순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때 주목되는 것이 하가라도를 먼저 연주한 다음에 상가라도를 연주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가야연맹체의 역사성과 연관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가야연맹체의 맹주는 처음에는 금관가야였지만 5세기에 들어와 대가야가 맹주국이 되었다. 맹주국이 된 대가야는 이

61) 보기와 사자기를 포함하여 12곡의 명칭을 모두 국명 또는 지명으로 보는 견해(田中俊明, 1990 앞의 논문, pp.101~114)도 있다.

62) 이 지명들은 국명이 아니라 대가야 왕의 치세 중 영역에 편입된 지역이거나 대외 진출에 중요한 거점 혹은 국방상 주요 성촌 지역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세기, 2003 『고분자료로 본 대가야 연구』, 학연문화사, pp.279~281 참조.

63) 상가라가 대가야라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하가라의 경우 함천 다라국으로 보는 견해, 김해 금관가야로 보는 견해, 함안 안라국으로 보는 견해 등 다양하다. 이에 대한 정리는 이영호, 2006 『우록 12곡을 통해 본 대가야의 정치체제』 『악성 우록의 생애와 대가야의 문화』, 고령군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p.114 참조. 필자도 이전에 하가라를 함천의 다라국으로 보았지만(노중국, 1995 『대가야의 정치사회구조』 『가야사연구-대가야의 정치와 문화』, 경상북도) 여기에는 금관가야로 고쳐둔다.

64) 이에 대해서는 김태식, 1996 앞의 책 참조.

를 과시하기 위해 천신과 가야산신의 결합을 통해 대가야 시조와 금관가야 시조가 탄생하였다는 설화를 만들었다. 그렇지만 금관가야는 前聯盟長으로서의 권위는 지니고 있었다. 이는 고구려의 경우 전왕족인 소노부가 종묘 및 영성과 사직을 설치하였다는 것에서⁶⁵⁾ 방증이 되리라 본다. 이에 대가야는 연맹체의 결속력을 해치지 않기 위해 금관가야국을 일정하게 대접하였고 그래서 악곡을 연주할 때 하가라도를 먼저 연주하게 하지 않았을까 한다.⁶⁶⁾ 이 또한 가실왕의 통합정책의 일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IV. 우륵의 입장과 신라로의 망명 : 맺음말에 대신하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실왕은 왕위에 오른 후 내부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연맹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가실왕은 聲音의 제일화를 추진하였고 이 일을 맡은 인물의 하나가 악사 우륵이었다. 우륵은 가실왕의 뜻을 받들어 가야금을 제작하고 12곡을 작곡하는 등 연맹체 결속에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따라서 우륵은 가실왕을 보필한 핵심적인 통합론자였던 것이다.

이렇게 가실왕을 도왔던 우륵은 대가야가 장차 어지러워질 것을 알고 가야금을 가지고, 제자 尼文을 데리고 신라에 망명하였다. 망명한 우륵은 551년 3월에 낭성에서 진흥왕의 부름을 받고 악곡을 연주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우륵이 신라로 망명한 시기는 551년 3월 이전이 된다. 여기서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은 그가 망명한 시기가 가실왕 대이나 아니면 가실왕이 돌아간 이후이나 하는 점이다. 필자는 가실왕이 통합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는 사실

65) 『삼국지』 권30, 위서 동이전 고구려전.

66) 노중국, 2009 「대가야의 정신세계에 대한 몇 가지 재검토」 『대가야의 정신세계』, 해움음 참조.

에서 미루어 우륵은 가실왕이 죽은 이후 신라로 망명한 것으로 보는 바이다.

우륵이 신라로 망명한 것은 “其國將亂”⁶⁷⁾ 즉 대가야가 장차 어지러워질 것이라는 상황 때문이었다. 이 ‘將亂’은 가실왕 사후 대가야의 내부 정세가 된다. 그런데 가실왕이 551년 이전 어느 시기에 죽은 이후 대가야가 멸망한 562년까지는 10여 년 정도의 시간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이 기간은 통상적으로 보면 1명의 왕이 재위한 기간이 된다. 앞에서 필자는 이 왕이 가실왕의 아들로서 대가야 최후의 왕인 도설지왕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將亂’은 도설지왕 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亂’이란 지배층 사이의 분열과 갈등에서 일어난다. 이 시기 이러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킨 요인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도설지왕의淫亂함이다. 도설지왕의 음란은 신라 진흥왕이 가야금과 그 곡을 大樂으로 삼으려 할 때 諫臣들이 亡國之音이라고 하면서 반대하자 “加耶王淫亂自滅樂何罪乎”라 한 말에서⁶⁸⁾ 짐작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도설지왕이 즉위 후 음란한 생활에 빠져든 것을 보여준다. 왕의 음란은 결국 정치질서의 문란을 가져오고 정치질서의 혼란은 나라를 위협에 빠뜨리게 하였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외정책에 대한 지배층의 갈등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실왕은 통합정책을 추진하였다. 친백제나 친신라가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세력 균형을 이루면서 自存을 도모하고 연맹체를 결속시켜 가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가실왕이 죽은 후 상황은 변하고 말았다. 지배세력들은 친백제와 친신라파로 나뉘어져 대립하였던 것이다. 여기에는 가야세력을 자국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백제와 신라의 집요한 설득과 위협도 일정하게 작용하

67) “後于勒以其國將亂 攜樂器 投新羅眞興王 王受之 安置國原”(『삼국사기』 권32, 잡지1 악 가야금조) 참조.

68) “諫臣獻議 加耶亡國之音 不足取也 王曰 加耶王淫亂自滅 樂何罪乎 蓋聖人制樂 緣人情以爲擗節 國之理亂 不由音調 遂行之 以爲大樂”(『삼국사기』 권32, 잡지1 악 가야금조) 참조.

였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우륵은 통합론자였다. 그는 선왕의 뜻을 받들어 신라와 백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그의 힘으로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는 없었다. 도설지왕대의 집권 세력은 점차 친백제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백제가 551년에 고구려에게 빼앗긴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 신라와 가야에 군사지원을 요청하였을 때 대가야가 그 요청에 응해 군사를 보낸 사실과⁶⁹⁾ 554년 백제가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 신라를 공격할 때도 대가야가 백제를 지원하기 위해 군사를 보낸 사실이⁷⁰⁾ 이를 입증해 준다.

이처럼 550년 전후에 대가야 지배세력이 친백제 쪽으로 기울고 그로 말미암아 지배세력의 갈등이 보다 격화되자 우륵은 나라가 장차 어지러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마침내 신라로 망명하고 말았다. 우륵이 신라에 투항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의 정치적 입장을 친신라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전에 필자도 그렇게 보았다.⁷¹⁾ 그러나 우륵은 기본적으로 가실왕의 뜻을 받든 통합론자였다. 그는 가실왕이 죽은 후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고 또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자 더 이상 대가야에 있는 것이 의미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신라에 망명하였던 것이다. 그가 망명지를 백제가 아닌 신라로 정한 것은 당시의 집권세력들이 친백제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것에 대한 저항의 표시라 할 수 있다.

우륵이 망명하자 진흥왕은 그를 받아들여 國原에 안치하였다.⁷²⁾ 진흥왕으로부터 우대를 받은 우륵은 제자를 기르고 음악을 통해 신라의 興隆을 도

69) “是歲 百濟聖明王親率衆及二國兵(二國新羅任那也) 往伐高麗 獲漢城之地 又進軍討平壤 凡六郡之地 遂復故地”(『일본서기』 권19, 흥명기 12년조) 참조.

70) “秋七月 修築明活城 百濟王明禮與加良 來攻管山城…”(『삼국사기』 권4, 진흥왕 15년조) 참조.

71) 노중국, 1995 「대가야의 정치사회구조」 『가야사연구-대가야의 정치와 문화』, 경상북도. 그러나 여기서는 우륵을 통합론자로 정정해 둔다.

모하는데 일조하였다. 그래서 진흥왕은 신하들이 가야금과 우륵의 곡을 ‘亡國之音’이라 하면서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大樂으로 삼았다. 그 결과 가야금이 오늘날에까지 전해질 수 있게 되었다.

투고일 : 2012.5.7

심사개시일 : 2012.5.21

심사완료일 : 2012.6.7

72) “後 于勒以其國將亂 攜樂器 投新羅眞興王 王受之 安置國原”(『삼국사기』 권32, 잡지1 악 가야금조) 참조.

참고문헌

『남제서』 『삼국사기』 『삼국유사』 『일본서기』 『신찬성씨록』 『신증동국여지승람』

田中俊明, 1990 『대가야연맹의 흥망과 임나』, 吉川弘文館

김태식, 1996 『가야연맹사』, 일조각

김세기, 2003 『고분자료로 본 대가야 연구』, 학연문화사

백승충, 1995 『가야의 지역연맹사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백승욱, 2003 『가야각국사연구』, 해안

양기석 외, 2008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武田幸男, 1975 「신라의 골품제의 재검토」 『동양문화연구소 기요』 67, 동경대학교 동양
문화연구소

백승충, 1995 「가라국과 우륵 12곡」 『부대사학』 19

김복순, 1995 「대가야의 불교」 『가야사연구-대가야의 정치와 문화-』, 경상북도

노중국, 1995 「대가야의 정치사회구조」 『가야사연구-대가야의 정치와 문화』, 경상북도

김태식, 1996 「대가야의 세계와 도설지」 『진단학보』 81

권주현, 2000 「우륵을 통해본 대가야의 문화」 『한국고대사연구』 19

주보돈, 2005 「우륵의 삶과 가야금」 『악성 우륵의 생애와 대가야의 문화』, 고령군대가야
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노중국, 2006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고구려의 한강유역 점령과 상실을 중심으로」 『북방사논총』 11, 고구려연구재단

이영호, 2006 「우륵 12곡을 통해 본 대가야의 정치체제」 『악성 우륵의 생애와 대가야의
문화』, 고령군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이동희, 2007 「백제의 전남 동부 지역 진출의 고고학적 연구」 『한국고고학보』 64, 한국
고고학회

노중국, 2009 「대가야의 정신세계에 대한 몇 가지 재검토」 『대가야의 정신세계』, 해웃음

Abstract

The change of the throne and the policy in Daegaya in early 6th century
- Focusing the change of the throne from King Inoi to King Gasil -

Noh, Choong Kook

In early 6th century, Baekje King Muryung advanced into Sum-Jin River area, a territory of Daegaya, to expand reduced economic base. To resolve such movement, Daegaya King Inoi decided to cooperate with Silla through marital relationship in 522. However, Silla broke the relationship and rather conquered Daegaya in 529, hence, King Inoi's pro-Silla policy was ended to fail.

After King Inoi passed away, the powers pursuing pro-Baekje policy took over the reigns. They set up Gasil as a king instead of Wolkwang, son of King Inoi. Gasil is assumed as a brother of King Inoi.

After ascending the throne, King Gasil instructed Ureuk to produce Gayageum and compose songs. It shows his intention to reunite the divided society for the King Inoi's pro-Silla policy through art and cultural tools. Meanwhile, he promoted to stabilize political situations by publically maintaining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Baekje and Silla.

King Dosulji, son of King Gasil, ascended the throne following the passing of his father's death. However, King Doseolji neglected his father's policy as well as indulged in obscene pleasures. Ureuk, who helped King Gasil to pushing ahead the reunion policy, judged the whole country would be agitated and then decided to refuge in Silla. Since Silla King Jinheung accepted his refuge and took his Gayageum musics as national music, Gayageum has been handed down until today.

Key words : The balance of power, pro-Silla policy, pro-Baekje policy, Gayageum, marital relationship, military response